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6/18 ~ 6/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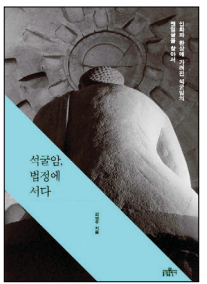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6	도쿄대학 불교학과	정상교	동아시아
2	붓다순례	자현	불광출판사	7	명상선물	현빈	이층버스
3	뉘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웅화	8	불교에서 본 우주	강승환	운주사
4	이것이 불교의 핵심이다	곽철환	불광출판사	9	법상유식학으로 풀이한 반야심경	송찬우	비움과소통
5	마음이 담긴 길을 걸어가	일운	담앤북	10	나깨와 아비타마의 철학과 그 전개	와타나베 후미코	동국대학교



신비·환상 걷어낸 석굴암의 '원형' 찾기

석굴암, 법정에 서다

성낙주 지음 | 불광출판사 펴냄 | 2만3천원



국보(24호)이자 세계문화유산인 토함산 석굴암. 지금으로부터 1300여 년 전인 751년(통일신라 경덕왕 10)에 조성된 석굴암(사진)은 종교적 의미를 넘어서 신비스러운 이야기들과 놀라운 과학 등으로 인식되어온 소중한 유산이다. 그런 면에서 많은 관심과 궁금증이 있어왔다. 특히 일제의 개축공사와 1964년 문화재관리국의 복원공사를 거치면서 '원형'에 대한 논쟁이 일었다. 책은 저자인 성낙주 석굴암미술연구소장이 1990년대 말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주요 쟁점들을 총 정리한 것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원형논쟁에서 제기된 각종 쟁점이 환상과 신비주의로 포장된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석굴암의 입장권에는 동해의 아침 햇살이 석굴암 본존불 이마의 백호(보석)에 반사되어 온 누리에 반사된다는 신화가 담겨 있다. 수십 년 동안 중등과정 <국어> 교과서에 실리는 것은 물론, TV다큐멘터리 방영 등으로 인해 20세기의 한국인치고 이 낭만적이고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신라인은 동짓날 동해의 아침 햇살을 석굴 내로 수렴해 본존불의 백호에 맞추려는 의도를 가지고 석굴암을 지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빌려 신라인의 예지를 칭송했고, 민족적 자긍심의 원천으로 삼아왔다. 일명 '햇살 신화'로

불리는 이 이야기는 그 누구도 저항하기 어려운 절대담론으로 이어져 왔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오늘날의 석굴암은 그 신비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 지난 1964년 7월 1일 문화재관리국의 복원공사 때 전실에 목조전각을 떼어냈기 때문이다. 복원공사는 곧 일군의 학자들에 의해 그 역사적 정당성과 성과가 부정당하게 되고 원형 논쟁이 시작된다.

'햇살 신화'는 석굴암 원형 논쟁의 주요 논점 중 하나이다. 햇살 신화가 석굴암의 원형이라면 지금의 목조전각은 건어내야 옳을 일이다. 또한 햇살 신화론을 원형으로 받아들으면 논쟁의 하나인 석굴암의 '개방구조설'까지 원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책은 전각을 건어냈을 때 발생할 현상들에 대해 지적한다. 석굴암은 해발 575미터의 심산유곡에 있다. 철따라 눈비가 퍼붓고, 산짐승과 날짐승에다 파충류와 양서류와 갑충류 등이 우글거린다. 뿐만 아니라 바다가 지척에 있어 일 년 열두 달 염도 높은 바다안개에 수시로 휩싸인다. 석굴암이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책은 햇살 신화와 목조전각은 양립할 수 없는 모순관계라고 말한다. 즉 신라인들이 부처님을 모신 법당을 그렇게 지었을 리 없다는 것이다. 책은 햇살 신화와 개방구조설이 토함산의 현실을 놓친 신비주의적 사고의 본비움은 아닌지 묻는다.

책은 원형 논쟁의 주요 논점인 햇살 신화를 비롯한 개방구조설, 광장설, 홍예석 일제 악의설, 석조신전설, 비도 대문설, 샘물 위 축조설, 전실 절곡설 등을 조목조목 짚어낸다.

'제1부 햇살 신화'에서는 '햇살 신화'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포되었는지를 추적한다. 책은 민족의 신화처럼 부상에 있는



원형 논쟁의 쟁점들 오류 지적

"오류의 뿌리는 환상과 신비주의"

'햇살신화', '샘물 위 축조' 등

1990년부터 제기한 쟁점 총정리

'햇살...' 주변환경 고려 안한 오류

'샘물...' 반과학적 사고로 인한 오류

석굴암의 아침 햇살 이야기를 일제의 태양 신앙이 투영된, 일본인들이 만들어낸 달콤한 문화식민사관의 하나라고 말한다. 이와 함께 개방구조설과 광장설 등의 가설 역시 진의가 어디에 있던 일본식민사관에 봉사는 결과라고 덧붙이며, 일본의 햇살 신화에서 파생된 '광장설'과 '홍예석 철거론', '석굴암이 석굴사원이 아닌 그리스나 로마에서 유행한 대리석 신전과 비슷한 '일반 건축물'이라 주장하는 '중각석굴설'도 함께 살펴본다.

'제2부 석굴암의 20세기'에서는 구한말의 석굴암의 실상에서 총독부의 개축공사

의 명암을 살펴보고, 석굴암 원형논쟁의 씨앗인 1960년대의 문화재관리국 복원공사 과정을 상세하게 다룬다. 이와 함께 석굴암 논쟁에서 가장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된 '개방구조설'과 우리나라 학계의 '철거지상주의', 잇음 만하면 등장하는 '석굴암 위기론'의 배경을 살펴본다.

'제3부 석굴암, 역사의 법정에 서다'에서는 그동안 과학 전공 연구자들이 제출한 석굴암 담론들을 중점적으로 조망한다. '광 속의 오장론', '샘물 위 축조설' 등 과학을 배반하는 논리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토함산의 기상을 보여주는 자료를 통해 1960년대 복원공사 때 세운 전각의 당위성과 실제 고서에서 발견되는 전각 실재의 증거들을 살펴본다.

석굴암은 단순히 불교문명의 산물이 아니다. 동서양의 경계를 뛰어넘은 건축, 토목, 조각, 수리학 등의 위대한 실험들이 응집된 문화유산이다. 여기에 신라인의 예술적 영감이 더해져 절대 조화의 경지에 이른 것이 석굴암이다. 저자는 석굴암의 창건주 김대성이 자신의 깨우침을 석굴암이라는 조형언어로 구조화시켰듯이, 오늘날 석굴암 연구 역시 "과학자의 눈길로 응시하고, 시인의 상상력으로 풀어내야 한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환상이나 신비주의의 눈으로 석굴암을 바라본다면, 소모적인 논쟁에 묶여 우리의 석굴암 연구가 '근대'에 머문다면, 고대 동서양문명의 꽃이자 예술혼의 절정인 석굴암은 이내 우리 곁에서 사라질 지도 모른다고 걱정한다. 1300년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석굴암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신화와 환상을 걷어낸 석굴암의 맨얼굴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우리 모두 행복해지는 길

왜 내가 먼저 양보해야 돼?

부복정 글 | 손운영 그림 | 참글어린이 펴냄 9천5백원



<왜 내가 먼저 양보해야 돼?>는 부처님의 가르침 중 <옥야경>의 가르침을 어린이의 눈높이로 다시 해석해 주는 책이다.

선주와 선호의 할머니는 어느 날 선호네 집에 왔다가 옛 친구를 만난다. 추자 할머니이다. 추자 할머니의 아들이 허리를 다쳐 병석에 눕자 며느리는 집을 나가고 추자 할머니는 식당일을 해가며 아들과 손자들을 돌보며 살아간다. 남편과 아이들을 버리고 집을 나갔던 며느리가 다시 집에 돌아오려 하자 추자 할머니는 며느리를 받아주지 않는다. 이때 선호 할머니가 친구의 며느리에게 <옥야경> 이야기를 들려주며 가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준다는 이야기다. 부처님 시절 급고득장자의 며느리 '옥야'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 이야기다.

누구나 좋은 것인 줄은 알지만 막상 실천에 옮기려고 하면 쉽지 않은 것들이 많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다른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기, 친절한 미소로 웃어 주기 같은 것들이 그렇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기, 양보하기 같은 것들이 그렇다. 내가 먼저 배물거나 양보를 했는데 상대방이 되갚아주지 않으면 나만 손해 보는 것 아니냐는 계산이 머릿속에서 먼저 떠오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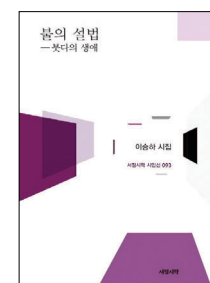
<옥야경>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여인, 특히 아내 혹은 며느리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전이다. 때문에 어린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부복정 작가는 <옥야경>에서 올바른 아내와 며느리의 도리만을 꺼내 오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어려워진 한 가정의 일화를 통해 남자 역시 그와 똑같이 아내를 공경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한다. 마찬가지로 형제나 남매끼리도 상대가 내게 대해 주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이 내가 먼저 상대에게 배물고 양보한다면 너와 나를 떠나서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박재완 기자

부처님이 걸어간, 그 길에서...

불의 설법

이승하 지음 | 서정시학 펴냄 | 9천원



이승하 시인의 신작 시집이다. 제1부는 부처님의 생애를 소재로 한 시편이고, 제2부는 <삼국유사> 소재 설화 14수와 <화랑세기>에 나오는 향가 1수를 재해석한 시편 및 원효에 관한 시 1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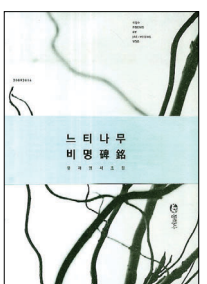
시집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불교와 부처님에 관한 내용을 소재로 한 종교적인 색채가 짙은 시편의 결집이다. 이 시집의 전작에 해당되는 시집 '해초의 <왕오천축국전>에 대한 시편이 결국 '길, 구도의 여행'에 관한 것이었듯이, 부처님의 생애에 대한 이번 시편 역시 50년

의 구도적 여정에 관한 것이다. 이번 시집의 주요 관심은 인간, 드라마틱한 갈등 양상, 그리고 구도와 고통스런 여정이라는 것, 즉, 인생에 대한 알레고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부처님에게서, 향가에서, 시인은 '무엇을 보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번 시집에 묶인 시편일 것이다.

이승하 시인의 이번 시집은 인도의 불교 유적지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해초가 지나갔던 길을 따라 여행한 뒤에 쓴 것이다. 부처님이 북아원에서 쿠시나गर까지 50년에 걸쳐서 한 이동의 경로를 따라가는 동안, 시인은 저 먼 시간의 간격을 넘어 부처님의 존재를 그 길 위에서 더 가깝게 느꼈을 것이다. 시간의 간격을 넘어서, 한 인간이 역사적으로 진정한 인간이 되기 위해 고투했던 길을, 시인이 되어 되밟아 감으로써 '구도, 드라마틱한 인생'은 그 자체가 초월이 아닌 '지상의 종교'가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박재완 기자

불편하게? 꼼꼼하게 읽는 시 읽기



느티나무 비명

유재영 지음 동학사 펴냄 1만2천원

"붓자국도 희미한 밀서(密書) 같은 길을 가다 / 눈부신 기척 있어 되돌아본 그 자리 에 / 한지 빛 하늘을 이고 번져 오는 묵매(墨梅) 향기-어느 날의 진경산수"

시인 유재영이 <절반의 고요(2009)> 이후 5년 만에 시조 스톨체 편으로 한 권의 시집을 냈다. 수 천 권의 책을 디자인하고 수 백 권의 시집을 디자인한 한국 1세대 북디

자이너이기도 한 그는 이번 시조집에서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보는 이들의 눈길을 끈다. 시조 한 수 한 수를 독립 페이지로 편집함으로써 '천천히 읽는 시집'을 만들고자 했다. 시조 한 편을 쓰는데 며칠 몇 달의 노력이 들어가는데 독자들은 길이가 2,3분만에 읽고 작품을 평가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새로운 시 읽기를 디자인으로 극복해보고자 했다.

이 시조집은 다소 불편한 시 읽기를 통하여 독자들이 '후루룩 읽는 시집'에서 '생각

하며 꼼꼼하게 읽는 시 읽기'를 제안한다.

과작 시인으로 알려진 유재영 시인은 "합축과 절제가 생명인 시조는 말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는 시인에게 더 없이 가혹했으며, 앞으로 절필하는 심정으로 시조를 쓰겠다."고 '시인의 말'에서 밝히고 있다.

이번 시조집에서 '유재영 시를 읽는 9가지 방법'을 쓴 문학평론가 장석주는 그의 시를 가리켜 "지존의 당당함, 한 치의 타협도 없다. 한 점의 더러움도 없다."고 평했다.

박재완 기자

동해의 아침 햇살은 석굴암 본존불의 백호를 비추지 않았다!

혼신을 다한 20여 년의 연구 끝에 밝혀낸 석굴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
1,300년 동안 한민족과 함께해온 국보 제24호 석굴암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만약 석굴암을 다음과 같이 만든다면, 석굴암은 머지않아 우리 곁에서 사라질 것이다

- 동해의 아침 햇살이 석굴암 본존불 백호를 비추게 한다
- 석굴암 돛 지붕 앞에 빛이 들어오는 창을 뚫는다
- 석굴암 바닥으로 샘물을 흐르게 해 법당 내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석굴암 바닥 아래에 샘물이 흐르게 한다
- 석굴암은 본래 전면이 뚫린 개방구조였으므로 입구의 전각을 제거한다

석굴암, 법정에 서다

만안법원에 찾아서 신화와 환상에 가려진 석굴암의 맨얼굴을 찾아서

대장경, 천년의 지혜를 담은 그릇

2011년 불교출판문화상 대상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

송나라 개보대장경으로 시작해 초조대장경 그리고 재조대장경으로 이어지는 교정이야기, 대각국사의 교장이라는 전무후무한 성과, 대장경에 담긴 고려인의 정신세계 등 동아시아 지식의 보고 고려대장경의 모든 것 그리고 그 속에 가려진 오해와 진실을 말한다.

오은희 지음 | 400쪽 | 20,000원

원더박스

2013년 중앙일보 올해의 책 후보도서

고대 그리스에서 배우는 다채로운 사랑, 19세기 영국에서 찾아낸 일의 본질, 고대 일본에서 배우는 여행의 기술까지 우리의 고정관념에 신선한 자극을 불어넣을 낯선 역사 속으로 독자를 안내한다.

로빈 크르스나리 지음 | 강해정 옮김
528쪽 | 20,000원